

그래도...타이거즈 우승 시계는 돌아간다

'마운드 초비상' KIA, 선발진 생존자 양현중 '유일' 이범호 감독 "야수들 힘내 공격형 팀으로 변화줘야"



최악의 부상 악재, 그래도 KIA 타이거즈의 우승 시계는 돌아간다.

KIA의 2024시즌은 부상과의 전쟁이다. 12승을 거두면서 에이스 역할을 했던

제임스 네일까지 지난 24일 NC 원정에서 턱관절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KIA의 4번째 선발 이탈이 발생했다.

시즌 초반 가동했던 선발진에서 27일 SSG전에 출격할 양현중이 유일한 '생존자'다.

정규시즌 우승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예상치 못한 큰 부상을 만난 KIA는 다시 또 마운드 운영 고민에 빠졌다.

이범호 감독은 27일 "고민이 많아도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경기는 해야 된다. 남은 경기 어떻게 꾸려 나갈지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이겨야 한다"며 "지금 투수에서 부상 선수들이 많은 만큼 쉽게 야수들이 힘을 내서 점수를 내주는 것밖에 없다. 공격적으로 하면서 다시 공격형 팀으로 변화를 줘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초비상 상황이지만 일단 KIA는 이번 주는 선발 고민 없이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잔여 경기 일정으로 금요일 경기가 없는 만큼 양현중을 시작으로 김도현-라우너 SSG전을 풀어간 뒤 정상 로테이션으로 활동하러 31일 삼성 원정 경기에 투입할 수 있다.

이범호 감독은 "금요일 경기가 없어서 로테이션 상으로는 빈자리 없이 그대로 돌면 된다. 그다음 돌아오는 1주일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일의 복귀 시점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네일은 지난 25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턱관절 고장술을 받았다. 수술은 잘 이뤄졌고, 28일 광주 지정병원으로 옮겨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마운드 위기 상황에 경험과 화력을 더해줄 구원

군이 등장했다.

지난 6일 KT와의 홈경기에서 8회 타격 도중 부상을 당했던 '최고참' 최형우가 복귀했다.

KIA는 27일 SSG와의 경기에 앞서 부상자로 제임스 네일과 장현식이 빠진 자리에 투수 유지성과 최형우를 등록했다.

우측 내복사근 손상으로 엔트리에 빠졌던 최형우는 이후 재활의 시간을 거쳐 지난 주말 두산과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실전 점검을 끝냈다.

최형우는 3경기에 나와 8타석을 소화했고, 4개의 안타를 기록했다. 25일 경기에서는 두산 선발 김동주를 상대로 우중간 담장 넘어가는 비거리 130m의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범호 감독의 우려와 달리 최형우는 '무력시위'를 통해 '이상 무'를 알리고 1군에 복귀했다.

이범호 감독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빠른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경기 다하고 올라왔다. 걱정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며 "많은 타석 나가서 치는 것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연습 타격하는 것도 보니까 문제없이 경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최형우의 등록을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최형우도 "이상 없다"며 우승 결승선을 내다보고 있다.

최형우도 "홈런을 치기 위해 경기를 한 것은 아닌데 홈런이 나왔다. 빈 스윙을 해보기 위해 경기를 많이 뛰었다. 경기 중 일부러 빈 스윙을 할 수는 없고 빈 스윙을 해야 부상 부위도 풀리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몸상태 좋다"고 밝혔다.

복귀와 함께 최형우는 4번 지명 타자 역할을 맡았다.

에이스 네일 등 선발진의 줄부상에 불펜진 부상이 겹치면서 화력 싸움으로 위기를 넘겨야 하는 KIA다. 그만큼 올 시즌 꾸준하면서 강렬한 활약을 해줬던 최형우의 역할이 커졌다.

부상 초비상 상황에서 부상을 털고 돌아온 최형우가 베테랑의 힘으로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가 정규시즌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잇단 부상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범호 감독은 야수들에게 공격형 팀으로의 변화를 주문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코리아컵 우승 향해” 광주FC ‘벼랑 끝’ 총력전

오늘 4강 2차전 울산 원정 경기 2점 차 이상 승리해야 결승행

광주FC가 '벼랑 끝 승부'를 위해 울산으로 간다.

광주는 28일 오후 7시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HD를 상대로 코리아컵 4강 2차전 원정경기를 갖는다.

장단 후 첫 4강 진출을 이룬 광주의 목표는 '우승'이다. 하지만 1차전 패배로 결승 무대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

광주는 지난 21일 안방에서 열린 준결승 1차전 홈경기에서 0-1패를 기록했다. 후반 추가 시간 터진 문민서의 골이 오프사이드 선언을 받으면서 이번 원정길에서 2점 차 이상 승리를 거둬야 결승행 티켓을 획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이번 경기를 통해 광주는 연패 탈출이라는 속세도 받았다.

지난 시즌부터 울산에 4연승을 기록했던 광주는 코리아컵에 이어 25일 전개된 28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연달아 패배를 기록했다. 김판곤 감독으로 새로 팀을 구성한 울산에 막힌 광주는 결승과 파이널 A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비상이 걸렸다.

야고와 광주를 울렸다.

야고는 코리아컵 1차전에서 후반 10분 득점포를 가동했고, 28라운드 대결에서는 후반 41분 시즌 10호골을 장식했다. 광주가 공세를 펼치고도 골대 불운과 울산 골키퍼 조현우의 호수비에 막혀 끝내 골대를 가르지 못하면서, 야고는 두 경기에서 모두 결승골 주인공이 됐다.

야고를 봉쇄해야 하는 광주는 진정에 강한 면모를 보이는 엄원상의 발도 뛰어야 한다.

앞선 울산전 아쉬운 패배에도 광주 수문장 김경민의 활약이 눈부셨다. 김경민은 6차례 선방을 선보이면서 팽팽한 싸움을 이끌었다. 물리설 곳 없는 이번 승부에서도 김경민의 물 샬 틈 없는 활약이 필요하다.

1차전에서 선발로 나선던 이강현, 신창무, 조성권, 정지훈은 확실한 어필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28라운드 경기에서 모처럼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광주FC가 28일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HD를 상대로 코리아컵 4강 2차전 원정경기를 치른다. 사진은 지난 25일 울산과의 리그 맞대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는 이희군. (광주FC 제공)

정지훈도 히든카드로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예상과는 다른 흐름으로 전개된 울산과의 3연전 일정의 마지막 대결, '2골 차 이상 승리'로 연패를 끊어내는 게 광주가 바라는 최고의 시나리오다.

광주 이경호 감독은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총

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가 안정적인 볼 소유로 울산을 막고 정확한 패스로 화력 싸움을 벌이면서, 결정적인 순간 한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주형, 2년 5개월만에 국내 무대

10월 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김주형 <사진>이 오는 10월 국내 무대에 선다.

김주형은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인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겸 DP월드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총상금 400만 달러)에 출전한다고 대회 조직 위원회가 27일 밝혔다.

김주형이 국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22년 5월 GS칼텍스 매경오픈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PGA 투어에서 3차례 우승한 김주형은 한국 선수 가운데 세계랭킹(22위)이 임성재(20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파리 올림픽에 안병훈과 함께 출전해 8위에 올랐다.

김주형은 "고국에서 경기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다. 한국에서 2년여 만에 경기할 기회를 준 DP월드투어와 KPGA 투어, 그리고 제네시스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세계 여러 장소에서 경기하며 다양한 조건에서 실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한국에서는 오랜만에 치르는 경기라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기대가 무척 크다"고 전했다.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작년까지는 KPGA 투어 단독 주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DP월드투어와 KPGA 투어의 공동 주관으로 바뀌면서 국내 개최 대회 중 가장 큰 총상금 규모로 치러진다. 대신 KPGA 투어 선수 출전 선수는 120명 가운데 3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임성재를 연정전에서 꺾고 우승한 박상현이 디펜딩 챔피언이다.

대회 입장권은 당일 입장 가능한 '일일권'과 대회 기간 내내 입장할 수 있는 '전일권'으로 구분되며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다.

9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1차 기간에는 정상가의 30%를 할인하며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2차 기간에는 20%를 깎아준다. /연합뉴스

LPGA 투어, 다시 미국에서

신설 FM 챔피언십 29일 개막

스코틀랜드에서 2개 대회를 치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미국으로 돌아갈 경쟁을 이어간다.

2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TPC 보스턴(파72·6598야드)에선 LPGA 투어 FM 챔피언십이 개최된다.

이달 초 포틀랜드 클래식 이후 4주 만에 미국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대회다.

포틀랜드 클래식 이후 7~10일 프랑스에서 열

린 2024 파리 올림픽에 많은 LPGA 투어 선수가 출전했고, 이후 15일부터 스코틀랜드 에어셔에서 ISPS 한다 스코틀랜드 여자오픈이 열렸다.

22~25일엔 스코틀랜드 파이프의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오픈이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주 이어지는 FM 챔피언십은 올해 처음 열리는 신설 대회다. 총상금 380만 달러(약 50억 5000만원)로, 메이저 대회와 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1100만 달러)을 제외하면 상금 규모가 가장 크다. /연합뉴스